우암학원 창학67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530호 1판 (음력 5월 6일) 2017년 6월 29일 목요일

활기찬 신동엽은
NK뷰키트
숫자로 확인하는 NK세포 활성도
문의 : 080-340-2222 www.nkvue.com

"광주 중앙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시민단체 '일몰제' 토론회 조진상 교수 3대 공원 지키기 제안

중외공원 비엔날레지구 보전·일곡공원 개발해도 문제 없어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개발위기에 놓인(2020년 7월 공원구역 해제) 광주의 센트럴파크 '서구 중앙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보전하자는 방안이 급부상했다. 〈관련기사 6면〉

현행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 완화, 지방재정 확보라는 선결과제가 있으나 전국 시·도지사,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국가도시공원네트워크(가칭)를 구성해 문재인 정부를 설득, 중앙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보전하자는 방안이다.

중앙·중외·일곡 등 이른바 광주 3대 공원 중 중외공원은 비엔날레지구를 지키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일곡공원의 경우 개발압력이 낮아 오는 2020년 7월 공원구역 해제가 결정되더라도 당분간 난개발은 없을 것이란 주장도 제시됐다.

조진상 동신대교수(도시계획학)는 28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도시공원 일몰제,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주최의 토론회에서 "광주 3대 공원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이날 주제 발표에서 중앙공원, 중외공원, 일곡공원의 공원별 특성과 개발압력(개발수요)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으면서 개발 위기에 내몰린 광주 3대 공원을 지키기 위한 대안을 설명했다.

광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서구 중앙공원(294만㎡)의 경우 일부 선결과제는 있으나 국가도시공원 지정 가능성이 낮지 않을 것으로 평가됐다. 선결과제는 국가도시공원지정 요건 완화와 지방재정 확보다.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해선 공원 부지 면적이 300만㎡ 이상이고 지방자치단체가 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하는데, 면적의 경우 시행령(도시공원 및 녹지법 시행령 제 24조의 2 제1항)을 개정하고 재정 확보의 경우 국비·지방비 매칭(50%씩)으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게 조 교수 분석이다. 중앙공원의 토지보상비는 6600억원으로 추정됐다.

조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전국 시·도지사와 시민사회의 건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6대 광역시 별로 대표 공원 1곳씩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소요되는 국가예산은 시·도당 2000～3000억원씩 총 1조 2000억～1조8000억원 수준이며, 2018년 안으로 결정되도록 논의를 서둘러야한다고 강조했다.

면적 244만㎡인 중외공원의 경우 공원 상당부분을 폐지하더라도, 비엔날레전시관을 중심으로 한 공원지구를 보존하는데 역량을 모아야한다는 현실론이 제시됐다.

중외공원 전체 면적의 30%를 차지하는 비엔날레전시관을 중심으로 한 공원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70%는 고도가 높거나 임야로 구성됐고 근린공원(동네공원) 성격이 강해 공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더라도 큰 문제될 것이 없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광주비엔날레, 민속박물관, 현대미술관, 문화예술회관 등 다수 문화예술시설이 집적된 비엔날레지구(광주박물관 서하로 남측, 오른쪽)는 공원 존치를 포기해선 안 된다는 게 조 교수 주장이다. 해당 면적의 70%가 공유지여서 나머지 사유지 매입을 우선하면 불가능한 대안이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북구 일곡공원(106만㎡)은 극히 일부를 제외한 공원구역 지목이 임야이며, 산악지형으로 돼 있어 민간공원 추진시(30% 개발, 70% 공원조성)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으로 분석됐다. 공원 일몰제에 따라 오는 2020년 일곡공원이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게 오히려 시민에게 이롭다는 판단이다.

조 교수는 "무등산공유화운동, 광주 푸른길 공원 조성 경험을 살려 도시공원 트러스트운동을 추진해 시민 관심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광주시와 중앙정부 정책수립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비정규직 차별 철폐" 乙의 외침 ▶7면
그리스인 조르바-이로디온 극장 ▶18면
KIA 투·타 모두 '왼손' 풍년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8일 오후 서울공항에서 미국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대통령 미국 방문 … 3박5일 '동맹외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3박5일간의 일정으로 미국 방문길에 올랐다. 〈관련기사 3면〉

문 대통령은 미국 동부 현지시간으로 28일 오후 워싱턴D.C에 도착, 장진호 전투 기념비 헌화를 시작으로 미국 순방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가 다음달 2일 늦게 귀국한다. 이번 문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은 '공식 실무방문'(Official Working Visit)의 형식을 띠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고의 예우'를 약속하면서 문 대통령 내외에게 백악관 환영 만찬을 제공하고 3박4일간 영빈관 '블레어 하우스'(Blair House)에 숙박하도록 함으로써 국빈에 준하는 의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전남 일자리 3만개 외국인 근로자가 채운다"

향후 5년 간 10%씩 증가

저출산과 극심한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광주·전남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증가 폭이 국내 다른 자치단체보다 큰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젊은층이 기피하는 수도권 3D업종에 집중됐던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완도, 진도 등지의 수산업으로 분산됐고 광주지역 공단에서도 꾸준히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탓이다.

이에 광주·전남지역에서 향후 5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가 매년 10%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내국인 근로자 2만～3만여명이 감소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전남대 경제학부 이찬영 교수는 2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주관으로 열린 '고용절벽시대 광주·전남지역 외국인력 활용방향' 세미나 주제발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광주·전남 외국인력은 근로자를 중심으로 증가 폭이 다른 광역자치단체보다 크며,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광주는 10.1%, 전남은 14.4%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공단이 밀집된 광주 광산구와 북구, 전남 영암 등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이 증가하고 최근 들어 신안, 완도, 해남, 고흥, 진도 등 수산업 지역에서 높은 증가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내국인의 일자리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내국인 일자리 대체 최소화 ▲외국인력 수급시스템 안정화 ▲외국인력 지원시스템 접근성 강화 ▲내외국 인력 상생 협력 체계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유미 영장 … 국민의당 '윗선' 수사 확대

검찰, 관련자 자택 등 압수수색

안철수, 영장 발부 때 입장표명

검찰은 28일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 입사 특혜 의혹 관련 제보 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여·38)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관련기사 3면〉

검찰은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이씨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이씨가 이 전 최고위원 등 국민의당 윗선의 지시를 받고 특혜 의혹 증거를 조작했는지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국민의당도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김관영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은 이번 사안에 직접 연루된 이유미씨는 물론 이준서 전 최고위원, 이용주 전 공명선거추진단장 등 관련자들의 조사를 시작했다.

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이씨가 단독으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 단장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면서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까지 반드시 만나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 전 대표는 이유미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 발부가 이뤄지는 시점에 전반적인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본 사 인 사

▶유임현:이사·대외사업본부장
▶하철호:경영지원국 출판부 국장
▶박진현:제작국장 겸 예향국장 문화선임기자
▶임금택:서울지사장
▶정은조:전남주재총괄본부장
▶최재호:편집국부국장 겸 경제부장
▶홍행기:편집국부국장 겸 정치부장
▶장필수:편집국부국장 겸 전남본부장
▶임동욱:서울취재본부장
▶유제관:편집1부 부국장
▶정재경:편집2부 부국장

〈6월 29일자〉

무안출발 일본여행
2017. 07. 07(금) 쭈~우~욱~~~~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여행 길이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 062-234-3222
F A X :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구성로 180(금남로5가)
NAVER 조이투어 검색 http://www.joytour.kr
일본여행 / 국내 · 제주여행 / 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대표이사 최 금 환

기타큐슈 일본국적 스타플라이어
※선착순 한정 특가
선박+항공 7/11 7/18
3일 북큐슈 298,000원 부터
4일 북큐슈 · 야마구치 398,000원 부터
항공 3일 7/21 7/28
북큐슈 3일 549,000원 부터
큐슈 · 야마구치 3일 699,000원 부터
항공 4일·5일
북큐슈 4일 649,000원 부터 8/1 8/5 8/8
큐슈 · 오사카 5일 698,000원 부터 8/20
자유여행 항공권 198,000원(TAX포함) 부터
◆포 함 사 항 : 왕복항공료, 항공TAX, 일본 현지 차량, 전 일정 식사, 관광지 입장료, 한국어 가이드, 해외여행자보험
◆불포함사항 : 개인 여권 및 경비, 기사&가이드 경비(₩30,000/인)

다낭 무안출발 베트남항공
여름 휴가기간(3박5일) 단, 4회!
7/30(일), 8/3(목), 8/7(월), 8/11(금)
[실속] 다낭 · 후에 · 호이안 999,000원 부터
(둘째날 오전 자유시간)
◆포 함 사 항 : 무안 ↔ 다낭 왕복항공요금, 1억원 여행자보험, 호텔(2인1실), 식사, 차량, 한국인 가이드, 일정상의 관광지 입장료, 차량 내 생수
◆불포함사항 : 현지 가이드 및 기사 경비(성인 $40, 만 12세 미만 $30), 개인 경비, 선택 관광, 매너팁, 싱글차지(3박 – 준특급 $120, 특급 $210, 초특급 $315)
노팁 노옵션
다낭 · 후에 · 호이안 1,299,000원 부터
◆포 함 사 항 : 무안 ↔ 다낭 왕복 항공요금, 1억원 여행자보험, 호텔(2인1실), 식사, 차량, 한국인 가이드, 일정상의 관광지 입장료, 전신안마 90분 2회, 바구니배, 바나산국립공원+케이블카, 호이안 야간시티투어+씨클로, 투본강투어, 차량 내 생수, 가이드&기사 경비
◆불포함사항 : 개인 경비, 매너 팁, 싱글차지(3박 – 준특급 $120, 특급 $210, 초특급 $315)

제주도 올레 2박3일
289,000원 부터
~ 2017년 12월 31일 까지

울릉도&독도 2박3일
464,000원 부터

홍도&흑산도 1박 2일
245,000원 부터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기획여행 보증보험 가입 업체 등록번호 : 제동다2003-1호
◈ 공통조건 : 여행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상품 :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 지역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 업체 ◈ 예약시 계약서(취소 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경비없음(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택관광, 각국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